

주현절 후 두번째 주일 예배

THE WORSHIP SERVICE OF 2ND SUNDAY AFTER EPIPHANY

주후 2023년 1월 15일 오전 10시

인도: 이성우 장로

*입례 찬양 Opening Hymn	“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”	다같이
*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		인도자
*찬 송 Hymn	430 장 “주와 같이 길 가는 것” (통일 456)	다같이
*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	3 번 시편 4 편	다같이
*고백기도 Prayer of Confession		다같이
*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		인도자
*송 영 Gloria Patri	643 장 “세번 아멘” (통일 555)	다같이
*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		다같이
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		이성우 장로
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	누가복음(Luke) 9:57-62	박은정 집사
찬 양 Anthem	“내 간절한 소원”	찬양대
설 교 Sermon	“주님을 따르는 올바른 신앙” (Right Faith to Follow the Lord)	정재홍 목사
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		다같이
봉 헌 Offerings		다같이
*송 영 Doxology	317 장 “내 주 예수 주신 은혜” (통일 353) 1 절	다같이
*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		다같이
교회 소식 Announcements		인도자
*파송 찬양 Sendig Hymn	438 장 “내 영혼이 은총 입어” (통일 495)	다같이
*축 도 Benediction		정재홍 목사

*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 Please stand if you are able.

고백의 기도

(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,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)

다같이: **거룩하신 하나님,**

예수님께서 우리에게 “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,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”고 말씀하셨지만,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,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도 못했습니다.

그래서, 우리는 사랑이 아닌 집착을, 배려가 아닌 자기 주장을, 겸손이 아닌 자랑을, 드러날 때가 더 많았습니다.

“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,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.”

물질적 소유와 이기적 욕망에 익숙해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.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게 하셔서,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, 이 땅에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.

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(*마 22:37, 39)

오/늘/의/ 성/경/말/씀 TODAY'S SCRIPTURE

“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.” (개역개정, 눅 9:62)

“Jesus replied, ‘No one who puts his hand to the plow and looks back is fit for service in the kingdom of God.’ ” (NIV, Luke 9:62)

매/일/성/경/읽/기 DAILY BIBLE READINGS

날짜	1/15 (주일)	1/16 (월)	1/17 (화)	1/18 (수)	1/19 (목)	1/20 (금)	1/21 (토)
	창16	창17	창18	창19	창20	창21	창22
본문	마15	마16	마17	마18	마19	마20	마21
	느5	느6	느7	느8	느9	느10	느11
	행15	행16	행17	행18	행19	행20	행21

수/요/ 찬/양/집/회 토/요/ 새/벽/기/도/회

수요 찬양집회 (1/18 오후 7:30)	“그 가운데서 행하라” (요이1:1-13)
토요 새벽기도회 (1/21 오전 6:30)	“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” (시108:1-13)

지난 주일(1/8, 임직 감사 주일) 말씀 – Matthew 25 Church(2)

“착하고 충성된 종아” (마태복음 25:14-30)

오늘 본문은 (일명) “달란트의 비유”로 알려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.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(바로) “주님 앞에 서는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라”는 것입니다. 흔히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주인의 칭찬받은 것은 그들이 달란트를 더 남겼기 때문이고,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달란트를 더 남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하지만, 중요한 점은 “주인이 어떤 분이신지”를 아느냐? 그렇지 못하느냐? 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. 왜냐하면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는 우리를 향한 어떤 보상 (Reward)이 아니라,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(Opportunity)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, 이것을 은사 또는 선물 (Gift)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.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 주신 달란트를,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기에,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? 에 따라 평가하지 않으시고,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했느냐? 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시기에,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, “착하고 충성된 종”이란? 어떻게든 위험부담을 감수하더라도, 이익을 더 남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, 1)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, 2)당장 주인이 없는 것 같아도,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, 이것이 (바로) 성경에서 말씀하는 ‘충성됨’입니다. 그러므로 이러한 충성됨으로,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, “잘 하였도다. 착하고 충성된 종아”(마25:21)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

설/교/ 메/모